



오월 깃발 앞세우고 지난 16일 열린 5·18 46주년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한 풍물패가 오월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.



우리 가족도 함께 지난 16일 열린 5·18 46주년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한 가족이 금남로를 걷고 있다.

# 오월광주, 민주주의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

사진=김애리·조영권 기자



묘역 둘러보는 유가족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·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.



전야제 풍물패 공연 지난 17일 5·18 46주년 전야제가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려 풍물패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.



다시 열린 민주광장 지난 16일 5·18 46주년 '오월 광주, 민주주의 대축제'가 복원 공사가 마무리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렸다.